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 결의문

구미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구미1산업 단지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 화력발전사업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그동안 구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생태와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탄소제로도시를 선포하고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저감 시책 시행 등 부단한 노력의 결과, 2016년 환경부 선정 그린시티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화력발전전기사업의 허가 건은 구미 지역 주력 업종인 IT, 전자, 반도체 등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업종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 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등, 구미시민의 노력을 수포로 돌려버리는 동시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과도 크게 어긋나는 사안이다.

(주)구미그린에너지의 주장대로 화력발전소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기존 발전소 잔여부지에 건설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주변의 주거 밀집 지역이 지속적으로 유해 환경에 노출될 경우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목재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되어 대규모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은 분명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주거지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함을 함께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1.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도심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구미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제로도시 선포,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탄소저감 시책을 꾸준히 실천하며 환경 보전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는 도시에, 신정부 에너지정책에도 반하는 구미 화력발전소 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1. (주)구미그린에너지는 폐목재 연료 사용으로 대규모 오염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화력 발전소 건립사업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생명권과 생활권 확보 차원에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구미화력발전사업 허가 철회 추구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7년 6월 2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